

포교

한국불교
포교 70년

‘포교는 사명’... 조계종 3대 지표로

1945년 8월 15일 36년간 일제 식민통치가 막을 내리고 해방을 맞았다. 해방 이후 불교가 직면한 과제는 일제 잔재의 청산, 사찰령의 철폐와 자주적 교단의 건설 등을 꼽을 수 있다. 더불어 불교는 미군정의 비호 속에 급격히 성장하는 서양종교의 도전에 맞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과제까지 떠안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954년 5월 불교정화를 촉구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는 ‘정화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정화운동은 불교를 비구 스님과 대승으로 양분하고 휴전 이후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관통하면서 길게 이어지다가 결국 1970년 5월 태고종의 분종과 통합종단 출범으로 막을 내린다.

이 긴 기간 동안의 갈등과 진통을 거쳐 현대 한국불교의 모습이 정비됐지만, 이 시기는 ‘포교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불교는 움츠러들지 않고 통합종단을 출범시키면서 포교, 역경, 도제양성이라는 3대 사업을 통해 포교를 우선순위에 두고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1966년 7월 송광사에서 열린 대불련 제6차 수련대회. 남학생 44명, 여학생 18명이 참여한 여성 불자의 참여도가 높아졌다.



포교원은 2013~14년 확장해 전국민이 명상을 경험하고 변화를 체험하는 힐링법회를 열어 포교의 장을 발돋움 시켰다.



조계종 포교원 개원식(1977.3.6) 석주 스님이 초대 원장이었다.

포교·역경·도제양성... 불교 중대과제로

1962년 조계종 통합종단이 출범하고 포교·역경·도제양성이라는 세 가지 중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언급이 처음 등장한 것은 정화 과정에서 비구스님과 대승 스님(불교개론), 청담 스님(선학), 기종 스님(의식), 운허 스님(교리), 대은 스님(교리) 등 쟁쟁한 대강백들이 참여해 교육을 담당했다. 또한 신도단체법을 제정해 전국신도회를 단일로 하는 신도조직을 구현하고자 했다.

1962년 12월 25일 개최된 제2회 중앙총회에서 교육법과 포교법이 통과됨에 따라, 1963년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전국 포교사강습회’가 용주사에서 개최돼 모두 23명이 수료했다. 이때 강사로 마무리되는 1970년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밖에 1966년을 ‘한국불교 중흥의 해’로 제정하고 포교·역경·도제양성을 3대사업으로 확정했다는 것은 통합종단 초기부터 포교를 종단적 차원에서 종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종단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포교활성화를 위한 종단적 사업이나 활동은 종단 정화가 마무리되는 1970년대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불교 침체기... 균승·신행단체·대불련 탄생

1960년대는 균승과 신도단체가 탄생하고 청소년을 위한 불교 교재가 간행되는 등 의미있는 시기였다. 1964년 국회에 균승장교 파견 건의서를 제출하고, 1968년 11월 균승제가 실시됐다. 권기중, 김복식, 이지행, 장만수, 권오현 법사가 제1기 균승장교로 임명됐다.

1967년에는 조명기, 서경수, 전준열, 김동화, 운허 스님, 법정 스님 등 20명이 참여해 종립학교 불교교재를 편찬했다. 부처님의 생애, 밝은 생활, 바른 길, 진리의 생활, 대승의 길 등 총 6권으로 이루어진

종립학교 불교 교재는 학교 교과서 형식의 최초 불교교재인 동시에 청소년 지도용으로 그 활용도가 매우 높았다.

포교의 암흑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포교의 명맥을 이은 재가불자들의 자생적, 자발적 활동 또한 빼놓을 수 없다.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다수의 불교단체가 등장해 불교와 종단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전국신도회, 교법수호전국신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롬비니회, 삼보학회 등이 있다. 이들 신도단체들은 종단의 혼란과 분규가 야기될 때마다 종단에 대한 애정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타협을 위한 활동을 다했다.

일제 청산·불교정화로 포교 어려움

조계종 출범 후 출·재가자 노력
군·어린이·청소년포교에 박차
스마트 세대 등 맞춤형 포교 나서

특히 1963년 9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가 창립하면서 젊은 불자가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대불련은 불교사상과 신앙의 체득을 위한 순수한 활동을 펼쳐 나갔고 통합종단 직후 대학생들에게 포교하려는 종단 및 스님들의 후원이 작용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청담 스님과 탄허 스님 등 당대 고승들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며 대학생, 청년 불자 양성을 위해 힘을 쏟았다.

대불련의 창립은 당시 새로운 불교를 일으키려는 노력의 결실이었다. 1956년 9월 황산덕, 이종익, 김경만, 고병완(후 광덕 스님)거사가 지성인을 위한 불교강좌를 시작해 3주일 후 대각사에서 대각회가 발족됐다. 1년 후 대각회 출신들에 의해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학 등에 불교학생부가 조직됐다. 이러한 활동은 교회의 대상으로 지성인과 청년에 주목했다는 점과, 이 영향으로 대불련이 창립되고 지성인 불자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환기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1970년... 불교대중화 주력

1970년대 포교의 특징은 불교의 대중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순회포교’를 통해 불교의 대중

화를 지향했다. 1973년 동국대에 재학 중인 스님들의 모임인 석림회가 방학 기간을 이용해 7월 22일~8월 5일 전국을 순회하며 설립하는 순회포교를 실시했고, 이 순회포교는 이후 매년 석림회의 중요 사업이 됐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1974년 10월 중앙포교사들이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불교사상 강연회를 실시하며 불교 대중화를 목표로 했다. 무진장 스님, 법성 스님, 김어수, 김한천, 선진규 등 중앙포교사들이 참여한 순회사상강연회는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53개 지역에서 실시됐는데 총 16만 명의 청중이 모여들어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런 활동으로 불교에 대한 대중적 수요는 높아졌고, 1976년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불교 사상강연회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 시기에는 여러 분야의 포교, 신행 단체가 활동했는데, 이 가운데 재단법인 대원정사와 한국불교연구원, 불광법회, 한마음선원, 그리고 대한불교진흥원이 대표적이다.

1970년 동국제강의 창업주인 대원 장경호 거사는 불교 대중화를 목표로 남산에 대원정사를 건립했다. 그리고 1973년부터 대원불교대학을 개설해 시민들에게 기초교리와 불교문화를 전수했다. 이보다 앞선 1972년 6월, 서울신도회가 불교신도의 자질 향상과 교양향상을 위해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했다. 이 교양대학에는 석주 스님(불교강론)을 비롯해 이기영(한국불교사상), 서경수(세계불교개론), 김두현(불교윤리) 등 스님과 불교학자는 물론 양주동(불교문학), 장

원중(시사경제)박사와 같은 석학들이 강사로 참여해 인기를 모았다. 이와 같은 활동은 불교의 저변확대에 큰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후 교계에 불교교양대학이 개설되는 시초가 됐다.

1980년대... 포교당 건립·청소년포교 활기

1970년대 후반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한 포교당 건립은 1980년대 포교의 큰 특징이 된다. 해방 이후 종단 정화 시기는 포교의 암흑기라고 명명할 정도였으나, 이후 통합종단이 발족하고 포교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 일제 강점기에 버금가는 도심포교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현대식 도심 포교활동 호시는 광덕 스님의 불광법회를 들 수 있다. 1974년 광덕 스님은 종로 대각사에서 불광법회를 창립하고 매주 목요일에 시민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어 올바른 불교의 진리와 가치관을 펼치다가 점차 정법 대중이 증가하자 1982년 송파구 석촌동에 불광사를 창건했다. 불광사는 사찰에서 신도를 대상으로 오랫동안 진행한 신도교육과 법회활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성과라는 점과 지역별 법회와 같은 새로운 신도 조직이나 신행활동의 모델이 시도됐다는 점에서 현대 포교당의 시초라 일컬어진다.

이후 도심포교당 건립이 활발하게 일어나 1980년대 포교의 가장 특징적 양상의 하나가 됐다. 1982년을 기점으로 서초동 강남포교원(성열 스님), 대조동 은평포교원(지원 스님), 구로동 남부포교원(일민 스님), 광명시 정각원(법장 스님) 등이 개척포교당이라는 이름

으로 계속 개원되면서 불교 대중화를 이끌기 시작했다. 또 통도사 포교당 구룡사(1985), 능인선원(1985) 등은 도심 속에 현대식 건축과 사찰의 전통미를 가미한 건물을 건축해 도심포교를 활성화시켰으며 다양한 시도와 활동으로 포교의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한편 도심 속 대중 포교활동의 흐름과는 또 다른 방식의 포교당이 건립됐다. 이른바 ‘민중포교당’으로 1980년대 들어서자마자 불교는 신근부에 의해 10·27 법난이라는 최악의 시련을 겪는다. 독재 권력에 의해 ‘불교가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스님들은 불교의 자주성회복과 대중포교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들을 시작했다. 주로 젊고 의식 있는 스님이나 청년 불자가 중심이 돼 구로, 성남, 부천 등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실시하며 사회 각 부문의 민주화운동과 연계를 시도했다.

1980년대 포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유아포교와 청소년 교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났다는 점이다. 1980년 이전까지 10개 미만이던 불교유치원은 80년대 들어오면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84년 1월 당시 전국 불교유치원 수는 18개이며 이 가운데 10곳이 1980년 이후 설립됐다. 1984년 들어 불교 유아유치원연합회가 발족하는가 하면 사찰과 포교당들이 유아원과 유치원을 새로 개원하면서 유아포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이와 함께 청소년포교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면서 포교원이 주축하는 청소년 지도법사 연수회가 1984년 6월 법주

Since 1994
마하연투어

문의처 : (02)365-7747 대표 정정행 두손모음
www.mahayeon.com

출발 : 인천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 -문의주세요

대만 “공승제” 5일 출발일 9월2일 요금문의

워동 웨리 태향산 완전일주6일 《행사가능》
출발 매주 목,토요일 요금문의

집중모객

-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 ▶[지장도량]구화산/[관음도량]보타산
- ▶[대한민국 영산] 북경/백두산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 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2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3 맞춤 순례 운영 *불교행사*

4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5 호텔, 행사일정, 식사 타사비교 필수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

6일 출발일	5월27일	요금문의
6일 출발일	6월11일	요금문의
5일 출발일	6월17일	요금문의
5일 출발일	6월24일	요금문의

◆ 라오스

- 라오스 6일 (베스트상품)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엔
- 라오스/베트남 7일 하룻배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엔

◆ 베트남/캄보디아

- [베트남]하룻배이 [캄보디아]씨엠펙 6일

◆ 태국

- [태국] 방콕-아유타야-파타야 5일

◆ 대만/홍콩

- 대만5일 대만3대사찰 순례
-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면

◆ 미얀마

- 양곤/바고/시리암 5일
- 양곤/바간/헤호 5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티티오7일

◆ 티베트/부탄

- 티베트 6일 성도-라싸-암드록추-간체-시가체
- 티베트핵심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정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 네팔/부탄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람-통사-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코트

◆ 중국

- [지장도량]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항주/보타/낙가산 5일
- 상해/항주/구화산/보타산 6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보현도량]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북경/오대산 5일
- 백두산 5일
- 웨리 크루즈(수륙대체 가능) ▶대동웨리, 화동웨리, 위동웨리
- 세계3대 트래킹명소 호도협 ▶공명/호도협/용록설산 6일

◆ 인도/네팔/스리랑카

- 인도 9일 델리-라즈기르-나란다-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
- 인도/네팔 10일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살리-쿠시나가르-롬비니-사라바스티-아그라
- 인도/네팔 15일
-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 스리랑카 완전일주 순례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볼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라

세계 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일주탐방 9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동부 일주탐방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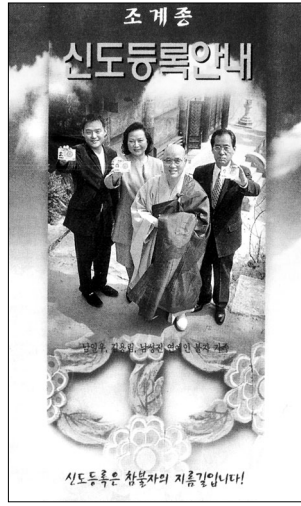
포교

한국불교
포교 70년

‘불교적 포교’ 대중감동·성공 지름길



조계종 포교원은 일선 학교에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 폭력, 게임 중독 등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일선 사찰과 협업을 맺고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조계종 신도등록 안내 문헌



2012년 5월 2일 문을 연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 법당. 3500여명을 수용하는 국내 최대 법당이다.

사에서 개최됐다. 이 연수회에서는 전국 222명의 스님들이 참여해 청소년 포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1990년대...포교원 별원 "포교 새시대"

1994년 출범한 개혁회의는 종단의 숙원사업이었던 포교원 별원을 해결했다. 1995년 1월 20일 조계종은 포교원 개원식을 열고 첫 포교원장으로 정락 스님이 취임했다. "포교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스님은 포교활성화를 위해 '21세기에 적합한 포교 전략과 장단기 포교사업 완성' '포교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 '어린이 청소년 불교' 등 4대 중점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포교인력 배양, 효율적인 포교자료 개발, 포교활성화를 위한 전문 조직화 등을 추진했다. 포교원은 1995년 전국의 불교교양대학 실태조사를 진행해 종단등록 제도를 시행했다. 그 결과 1995년 한 해 동안 전국 43개 불교교양대학이 종단등록을 마쳤다. 포교사 고시를 도입해 종단 차원에서 직접 포교사를 양성했다. 1995년 5월 종단 차원의 첫 설법자료인 월간 "법회와 설법"을 발간해 각 사찰마다 법회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포교원은 1995년 신학대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전국신도회를 대신할 중앙신도회를 발족하기로 뜻을 모으고, 같은 해 11월 발간대회를 개최했다. 신도종단등록 사업을 추진해 조계종 신도증을 배부했고, 신도교육체계도 정비했다. 1996년에는 '불교청소년의 해'로 정한 포교원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주력하고 청소년단체인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를 조직해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또한 1997년 전국 교사불자연합회를 창립하는 등 직능단위 신도조직도 확장해나갔다.

별원 이후 포교원이 주력했던 분야는 군포교 지원이다. 조계종은 군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5년

부터 2000년까지 총 18억원 이상 포교예산을 군포교 건립 기금으로 조성했다. 군포교 운영비도 정기적으로 보조해 군포교 활성화에 뒷받침했다. 이는 2005년 출범한 조계종 군포특별교구의 토대가 됐다.

2000년대...사이버·해외포교 확장

2000년대 포교 흐름은 청년불교·군포교·지역포교·사이버·해외포교 확장의 시기로 볼 수 있다. 2001년 제4대 포교원장으로 취임한 도영 스님은 취임 직후 신도기본교육 전면 실시, 10월 경찰불자회 창립에 이은 11월 경승총회와 경승단직 제정, 군포교위원회 창립 등을 치르면서 포교원의 주력 사업들을 계승했다. 2002년 월드컵 기간에는 전국 33개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 1천여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에게 전통사찰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한국불교 세계화'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2003년을 '지역포교 활성화의 해'로 정한 포교원은 종단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직할 사찰을 대상으로 한 포교 현황조사'와 '신도회 현황조사'를 실시해 자료집을 발간했다. 더불어 신도단체가 교구와 사찰을 중심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하고 교구본사 포교교 업무를 정형화해 포교교장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의 포교활성화는 포교원 초기부터 큰 관심사 중 하나였다. 1999년부터 '수련법회 정보센터' 및 사이버 포교를 위한 포교원 독자 홈페이지를 운영한 포교원은 각 신학대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대망을 생성하는 등 포교사이트(www.ibuddhism.org)를 개편하고 새롭게 운영을 시작했다.

2006년 2월 조계종 국제사이트를 오픈한 데 이어 인터넷을 통해 신도 기본교육을 진행하는 사이버불교대학도 개설됐다.

제5대 포교원장 혜종 스님 시기는 포교 성숙과 재도약기로 말할 수 있다. 오랫동안 어린이포교에 많은 활동을 해온 혜종 스님은 어린이포교단체협의회를 발족하고, 어린이 포교에 매진해 온 기존 단체들이 서로 힘을 모아 유기적 연대를 이루도록 했다. 이밖에 불교 대중화를 위해 1인 1수행, 1단체 1나눔 운동

전개, 어린이법회 콘텐트 개발, 불교상담대학, 불교상담대학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진각종도 어린이 포교에 힘을 기울였다. 2004년 진각종 포교부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잡지 자성동이 창간호를 10월 1일자로 발행하고 전국 74개 자성학교에 보급함과 동시에 자성동이 어린이 풋살대회를 매년 개최해 본격적인 어린이·청소년 포교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포교원은 신도의 위상과 조직화를 위해 2009년 신도멤버십 개념의 새 신도증 발급을 개시했다. 당시 신도등록 사업 변화는 그간 논의에만 머물렀던 종단 신도정책의 각 분야에 대해 본격적인 개선을 시행하는 원동력이 됐다. 군포교 활동의 결실도 이 시기에 맺어진다. 조계종 군포교구는 2012년 5월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군장병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법당인 호국연무사를 완공했다.

최근에는 마음과 정신의 상처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인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폰 상용화에 따라 SNS 사용자가 늘면서 법륜 스님·혜민 스님·법상 스님 등 여러 스님들이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불음을 전파해 마음을 달래주었다. 또한 '힐링'에 대한 열풍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조계종 포교원이 전지역을 다니며 개최한 2013~2014년 힐링법회가 큰 인기를 끌었으며, 불교 심리상담과 명상·수행을 접목한 프로그램 포교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불교계에서는 명상 워크숍, 심리상담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일반인들을 불교 심리학 분야로 안내했으며,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명상·수행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앞장섰다. 이처럼 템플스테이, 명상심리치료 등이 불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큰 호응을 끄는 이유는 사회적 추세를 따른 것도 있을 테지만, 부처님 가르침과 더불어 불교가 한국인 심성에 내재해 있기 때문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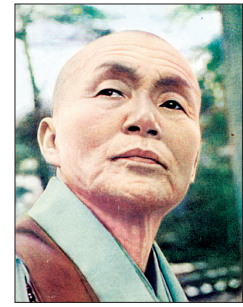
포교전문가들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내면적 심성을 자극하는 불교적 포교를 통해 대중을 일깨우고 감화시킬 때 포교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포교 역사를 이어간 인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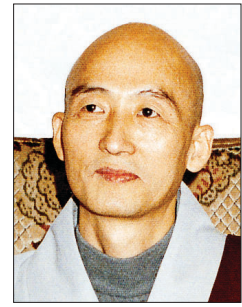
역경·설법·해외포교로 한국불교 일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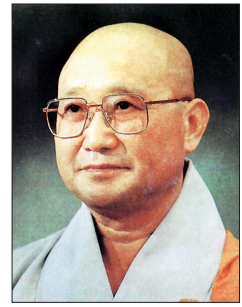
윤허 스님



청담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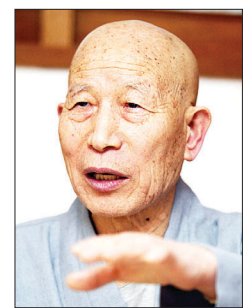
광덕 스님



송산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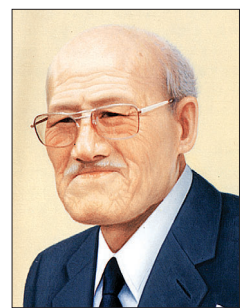
대행 스님



운문 스님



이한상 거사



장경호 거사

1960~80년대 포교 침체에 빛나는 노력으로 포교 역사를 이어간 선구적 활동들이 있었다. 바로 포교에 헌신한 스님과 재가자들의 활동이다. 종단정화운동 당시 조계사 주지 겸 중앙총림감사, 중앙포교사를 겸임한 관음 스님은 정화중에 조계사에서 정기법회를 열어 매주 300명~500명 정도가 법회에 참석하는 등 정화 초기 포교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

대은 스님은 탐골승방에서 <관음경>을 강의하며 대중을 교화했고, 대월 스님은 밀양, 화산 스님은 대구 관음사를 무대로 포교활동을 펼쳤다. 소천 스님은 특히 <금강경> 강의로 유명했는데 서울 대각사 대각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음을 전했다.

정화의 기수로 일컬어지는 청담 스님은 1966년 한 해에만 모두 288회의 설법을 해 주위를 놀라게 했으며, 역경원장 윤허 스님은 1969년 8월부터 1970년 3월까지 8개월간 삼보화회에서 <능엄경> 전권을 강의해 장안의 화제를 모았다.

강의에는 연인원 1만 여명이 수강하는 등 당시로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성황을 이뤘다. 어린이법회와 해외포교의 시점도 이 시기에 찾을 수 있다. 1961년 운문 스님은 조계사에서 서울 연화어린이회를 창립해 어린이 포교의 신기원을 세웠다.

송산 스님은 일본에 건너가 재일 흥법원을 개설해 재일동포에게 정신적 귀의처를 마련하고 한국 불교를 해외에 진출시키는 단초가 됐다.

방울 스님이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진 흥도 스님은 후암동 산비탈에 주벽을 구입해 법당을 개원하고 매일 새벽 골목을 돌며 도량석을 하고 항상 불서를 갖고 다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배부하는 등 대중 속에 뛰어들어 불음을 전하는 포교활동을 실천했다.

1964년 4월 성철, 청담 스님은 당시 백성옥, 김동하, 서문각, 홍성식, 이종의 거사 등의 대석학과 함께 이한상 거사의 원력으로 '대한불교삼보

청담 스님... 한 해 288회 설법

윤허 스님... 능엄경 전권 강의

광덕·대행 스님... 도심포교 앞장

장학회'를 창립하기에 이른다. 이후 언론과, 장학사업을 펼친 '삼보장학회'는 '삼보법회'(이하 삼보회)로 거듭나며 불교교양대학 개설과 함께 해외불교 교류와 포교, 문화활동도 전개하며 불교의 대중화에 진력했다.

이밖에 광덕 스님, 대행 스님 등이 불광사와 한 마음선원을 창건해 도심포교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최근에는 법륜·정목·혜민 스님 등이 도서·SNS로 대중과 소통하며 일반인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있다.

이너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JJUN Heating System Module

“**쫐**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특이점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www.jjunheating.co.kr

■ 지역 대리점

강남: 010-5097-8291
울산: 010-4597-5577
평창: 010-6433-8612
제주: 010-3000-1945

인산: 010-6610-2337
양산: 010-6294-6126
수원: 010-5211-7260

광주: 010-6890-0365
진주: 010-3583-7139
남양주: 010-9183-9729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사찰 연등 및 전선(범용) **초심자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동간력: 규격원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고추구 12E 3구 인치구 26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앵글 용품

일자형 S형 T분리형 LED배선형 LED홀더형 건전지 초

▶ 방생, 탐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선 시공